

병원 전입금 축소 우려... 대학 지출 예산 조정되나 의료원 “자금운영 안정적... 구성원 모두 노력 중”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조병연 기자 choby0309@khu.ac.kr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경희의료원 경영 악화에서 대학 또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이 부속병원으로부터 전달받는 ‘부속 병원 전입금’ 축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경희의료원 역시 예외는 아니다. 병상 가동률은 50%, 수익은 60%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른 부속병원 전입금 축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총장은 상황별 대응책 검토를 지시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이다. 경희의료원은 자금 운영이 안정적인 상태라고 주장했다.

**‘부속병원 전입금’ 축소 우려
현실화되면 지출 줄여야
대학, 대응책은 아직**

전입금은 ‘어떤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들어온 돈’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학교 자금 예·결산서에 전입금 수입으로 책정된다. 전입금은 이사회를 거쳐 연초에 책정되며 이후 재정 상황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다. 전입금은 대학 재정 안정성과 각종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

경희의료원 재정 악화가 대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병원 수익과 학교 재정이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부속병원 전입금은 ‘경상비 전입금’, ‘법정부담 전입금’과 같이 ‘전입금수입’으로 책정되는 자금이다. 부속병원 전입금은 우리학교 부속병원으로부터 대학 측이 직접 전달받는 전입금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따라서 병원의 재정 상태에 따라 금액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병원 의료수익이 감소할 시 우리학교 재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이사회를 통과해 편성된 2024학년도 부속병원 전입금은 316.9억 원이다. 학교의 1년 자금수입합계가 5,000억 정도니,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하지만 책정된 금액이 온전히 가능할지는 미지수. 예산팀 역시 추후 부속병원 전입금 변동에 “병원 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연말



경희의료원 재정난으로 대학의 부속병원 전입금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학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의료원은 “재정난은 회복 추세”라고 주장했으나, 무급휴가 등의 사용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사진1=정유현 기자, 사진2=하시연 기자)

에 가봐야 알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다만, 경희의료원 경영악화로 전입금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우리학교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

대학은 경희의료원으로부터 수익 관련 자료를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총장실은 “경희의료원에서 전출을 얼마 정도 보낼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된 게 없다”며 “전입금 변동을 속단하기 좀 이

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희의료원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상황별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예산팀으로부터 보고된 내용이 없고, 정확한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속병원 전입금 변동이 불가피할 경우, 대학의 자구책은 필수다. 전입금 감소는 곧 대학의 지출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 예산팀 역시 “부속병원이 전입금을 못 준다고 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며 “수익이 줄어들면 뻘하다. 다른 지출 쪽에서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대응 계획은 언제쯤 세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라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총장실은 “실무 부서로부터 보고 받는 게 우선인데 받은 바 없다”고 시선을 돌렸다.

**경희의료원 “자금운영 안정 상태”
무급 휴가 사용하면서
급여 중단, 희망퇴직 검토 안 해**

앞서 지난 4월, 오주형 경희의료원장은 원내 공지문을 통해 “6월부터 급여 지급 중단과 더불어 희망퇴직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경희의료원에 따르면 의정갈등 초기에 비해 현재는 운영 상태가 회복됐다고 주장한다.

경희의료원은 “재무 상황 관련 내용은 경영자료로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구성원 모두의 노력 끝에 현재 회복추세에 있으며, 경영 안정화를 이뤄나가고 있다. 현재 자금 운영은 안정적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무급휴가 사용, 비용 절감, 보직 수당 반납 등으로 대책을 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간호사들은 경희의료원 재정난을 고려해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중이다. 재정난과 관련한 주요 매체들의 잇따른 보도로 어수선한 분위기와 심리적 동요 또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직원 급여 중단, 희망퇴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희의료원은 “그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희망퇴직은 현재는 검토하지 않는 사안”이라며 해당 방안에 대한 실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희의료원은 “어려운 의료 현장에서 맞서가며 모두가 한뜻으로 의지를 모아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질 더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는 무의미한 소문이 확산돼 직원들에게 상처가 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